

양평소방서, 쉬는 날도 ‘골든타임’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환자 구한 소방관

기사게재일: [2020-07-15 13:07:11]

배석환 기자



▲ 양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간종순 팀장(소방경)

쉬는 날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인명을 구한 소방관의 활약이 화제가 되고있다.

양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간종순 팀장(소방경)은 지난 12일 일요일 07시 30분경에 갈산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던 지인이 심정지가 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체 없이 달려가 능숙한 숨쉴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119신고를 유도하였다.

간종순 팀장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하는 5분여 동안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의식이 회복되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후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대응이 완벽하고 심폐소생술도 정확하게 실시하여 다른 장기에 손상이 전혀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간종순 팀장은“소방관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